

석길암의 고려불교인물 <10>
혜소국사 정현 (慧昭國師 鼎實: 972~1054) 下

정현 스님의 계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정현을 비롯한 고려전기 법상종 승려들이 <금광명경>을 바탕으로 한 방생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금광명경>은 보통 4천왕에 의한 국가 수호와 현세의 이익을 강조하는 호국경전으로 널리 알려진 경전이다. 흔히 호국불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경전이 바로 <금광명경>과 <인왕호국반야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현 스님의 비명을 통해서 본다면, 국가불교적 성격과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 안의 방생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적 실천이 더 깊은 관심의 대상이었음이 주목된다.

스님은 당시 법상종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던 원주 법천사와 개성 현화사 주지로 주석했다. 중희13년(1044년)에 스님은 개경 광제사(廣濟寺) 절문 앞에 술을 걸어놓고,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배고픈 사람들을 초대해 차별 없이 식사를 제공했는데, 공간에 쌓인 곡식을 탕진하도록 나누어주고도 조금도 인색함이 없었다. 또 삼각산 고갯길 험한 땅에 사현사(沙峴寺)를 창건해, 고갯길을 평탄하게 해 오가는 길손이 편하게 했고 도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했으며 여행객을 위한 숙박과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스님의 이러한 활동들은 경론에서 권하

고 있는 사회적 봉사활동들을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이는 것, 곧 보살행의 실천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시 고려에서 불교교단이 가졌던 사회적 역할의 전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국가가 불교를 의호해주는 세속사회의 지원세력이라면, 반대로 불교교단은 그 세속사회의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불교교단, 곧 승가공동체와 그 승가공동

절문 앞에 술 걸고 밥 지어

굶주린 자들에게 식사 제공

당시 고려 불교교단이 가졌던

사회적 역할의 모습 보여줘

체가 속에 있는 세속사회는 단순히 종교공동체와 세속사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이와 잇몸의 관계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천행이 정현 스님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다.

스님의 이 같은 대사회적 실천은 널리 알려져, 1046년 정종 말년에 궁궐의 초청을 받아 <금광명경>을 강의했고, 1048년의 기우제법회에서도 역시 8권 <금광명경>을



홍제동 5층 석탑(보물 제166호). 고려시대의 화강암 석탑으로 1045년(고려 정종 11년)에 사현사(沙峴寺) 창건 당시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홍제동 사현사 터에 있던 것을 시가지 확장공사로 인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다. 사회적 봉사활동을 실천한 정현 스님은 삼각산 고갯길 험한 땅에 사현사(沙峴寺)를 창건해, 고갯길을 평탄하게 해 오가는 길손이 편하게 했고 도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여행객을 위한 숙박과 편의시설을 제공했다.

강의하고 있다. 이어 1049년에는 78세로 왕사에 책봉됐으며, 1054년 83세에는 마침내 국사의 위에 올랐으니, 스님이 생각하고 실천한 보살행이 당시 사회의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사회적 실천행에 대한 긍정과 지지는 스님이 입적한 후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됐는데, 그 실천의 현장을 고려를 방문했던 송나라 사신 서경이 목격

하고 <고려도경>에 소개했던 것이다.

흔히 불교사에서는 고려전기 법상종의 융성을 왕권중심 세력에 맞섰던 귀족세력의 옹호를 받은 불교교단의 융성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한 지적은 일정 부분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융성에 이르는 전제조건은 불교의 핵심 주제인 승려 혹은 승려들의 공동체인 교단이 그 자체로서 행해야 할 실천의 덕목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불교교단과 승려는 세속을 떠나 사회 바깥에 별도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며, 당연히 세속의 보호자로서 그리고 세속의 구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행하는 집단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 불교는 더 이상 불교라는 테두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사회는 불법을 불법답게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혜소국사 정현,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고려전기의 법상종 출신 국사. 하지만 뒤를 이어 번성하게 되는 법상종의 성세는 그가 일구어놓은 사회적 실천의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이빈 글은 서울대 남동진 선생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되었음을 밝힙니다.)

김경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센터 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27

임제종의 개조 에사이(榮西) ㉔

차와 다도의 개조로도 알려진 인물

에사이는 천태종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1209년 막부의 핵심지인 카마쿠라(鎌倉)로 가서 포교할 것을 결심한다. 그곳에서 최고 지위인 쇼군[將軍]을 비롯해 무사들의 대환영을 받았다. 막부의 지지를 받고 슈후쿠지[壽福寺]를 열어 선종 포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막부를 배경으로 교토에 최초의 선원인 켄닌지[建仁寺]를 열어 지관, 진언, 선의 삼종을 겸학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구세력과의 조화를 의도한 것으로 실은 새로운 종파로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조동종의 조사 도연[道元]이 제자로 입문했다고 전해진다.

에사이는 2년 후 <일본불법증흥원문>을 지어 세속화된 불법을 재건하기 위해 승원의 규칙인 선의 정구로서 계율을 부흥시키고, 진언밀교의 주력으로 써 국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흥선호국론>에서도 계율의 중요

일본 최초의 다서(茶書) 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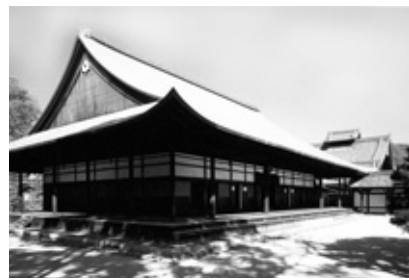
일본 차 문화에 크게 기여해

함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권두에서 선은 계율의 도움으로 인해 불법을 흥룡시키고 연구히 존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임제종의 선승만이 아니라 중국 유학에서 배워온 기우(祈雨)의 수법에도 뛰어난, 밀교의 법을 익힌 승려이기도 했다.

일반인들에게 에사이는 일본 최초의 다서(茶書)인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지어 일본 차 문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 계기는 송(宋) 나라에서였다.

그는 순례 중 어느 날 몸의 이상을 느꼈다. 길을 멈추고 한 노점에 들어갔다니 주인이 차를 권했다. 다시 원래의 기운을 회복한 그는 차의 효용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천태산에서 선을 배울 때 선사들이 수행 중 잠을 몰리치는데 차를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꼭다양생기>에 중국의 <차경(茶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인용해 차의 효능, 차나무 재배법, 차 제조법, 차 마시는 법 등을 기록했다. 차는 중국 고대부터 약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 전부터 중국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차를 의약으



교토 켄닌지(建仁寺)의 방장

로써 취급, 이 서적을 의서(醫書)로 사용했다. 에사이는 이처럼 차 보급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일본 차 문화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실 에사이는 차의 정신적 세계나 의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가 전개된 것은 15세기에 이르러서였다. 다인이자 승려인 무라타 슈코[村田珠光]가 다이토쿠지[大徳寺]를 중심으로 그 길을 열었다. 이후 타케노 조오[武野紹鷗]와 센노 리큐[千利休] 등으로 이어져 선수행에 기반한 차 세계의 전통이 확립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에사이의 꼭다의 세계가 근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에사이는 동서일본을 역방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당시 조정과 막부는 구수도인 나라[奈良]의 불교를 부흥시키고자 했다. 그 핵심적 역할을 한 초점이 임적하자 조정은 에사이를 권진직(勸進職)에 임명했다. 중국에서의 초견과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다.

임제종은 막부의 세력권 하에서 5산(祈雨)의 수법에도 뛰어난, 밀교의 법을 익힌 승려이기도 했다.

일반인들에게 에사이는 일본 최초의 다서(茶書)인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지어 일본 차 문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 계기는 송(宋) 나라에서였다.

그는 순례 중 어느 날 몸의 이상을 느꼈다. 길을 멈추고 한 노점에 들어갔다니 주인이 차를 권했다. 다시 원래의 기운을 회복한 그는 차의 효용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천태산에서 선을 배울 때 선사들이 수행 중 잠을 몰리치는데 차를 활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꼭다양생기>에 중국의 <차경(茶經)>을 비롯한 여러 문헌을 인용해 차의 효능, 차나무 재배법, 차 제조법, 차 마시는 법 등을 기록했다. 차는 중국 고대부터 약으로 알려져 실제로는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 전부터 중국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당시의 사람들은 차를 의약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경 봉 스님이 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 ㉔

구천의 비바람 허공에 개이니 달은 못 강의 한가운데 비치네

“출가해 스님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몸의 편안함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위 같은 서산 대사의 글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통도사의 가풍은 대체로 어른을 잘 모시고 수순(隨順)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고 있다. 경봉 스님은 그런 흐름을 잘 이어가셨던 분이다. 스님의 은사 이신 성해(聖海; 1854~1927) 스님과의 인연이 그렇고, 사형인 구하(九河; 1872~1965) 스님과의 인연도 아름답게 이어가신 것이다. <삼소굴일지>에 의하면 스님의 은사 이신 성해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일 정기간 지극정성으로 매일 <화엄경>을 독

경하는 장면이 있다. 또 은사 스님의 원적(圓寂)에 시 한수 지은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공경(空劫)전의 그림자 없는 나무가 우연히 봄바람 만나 세상에 나왔네 은사님 돌아간 곳 못지를 말라.

신령한 광명 공적한 것이 이 영진(靈眞) 일세. 그리고 은사스님의 백재(百齋)날에도 은사스님을 기리는 시 한 수를 지으셨는데 우리 스님 생전에 어지셨으니

오당 영왕이 칼을 풀고 맞았으니 오랜 세월 선정(禪定) 익히셨는데 기도하고 제사 지낸다면 도인들이 비웃으리 바다물이 트림하며 하늘로 날고

어부는 낚시를 내리고 노를 젓는다 꽃은 웃고 새는 노래해 아무 일도 없는 데 춘추(春酒)를 한 잔 더 기울이리”

이와 같이 은사스님을 위해 불공을 드리며 생각해 잠겨 시를 지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 스승과 제자사이의 각별한 인연을 느낄 수 있다. 사형인 구하 스님이 평소애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이를 안 스님은 사형 스님 살아생전 글씨를 삼갔다고 한다.

경봉 스님이 구하 스님에게 쓴 편지를 보면,

“오동잎이 우물가에 떨어지니 계수나무 가지에 가을이 온 줄 알겠고 가을물은 하늘가에 달아 한빛이라 풍월이 함께 맑으니 이 밖에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산명수려한 곳에서 주석하여 약을 달여 자신 뒤에는 건강이 어떠한지요. 범희선열의 맛이 독특하시니 평소부터 공경하고 또한 치하여 왔습니다.

요즈음 한번 가서 진배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람의 일이라 자연히 뜻은 있어도 정성이 못 미치니 너그럽게 살피소서. 태산에는 반드시 사자가 있고 큰 바다에도 신통이 숨어 있는 법인데 이 큰 사찰에

어찌 주인이 없겠습니까. 형주계서는 영축산의 원로이시며 또한 주인공이시니 이로부터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편지를 볼 수 있고, 스님의 일기에 사형스님의 임적(入寂)에 장례를 치르고 시 한수를 지으셨는데

“구천의 비바람이 허공에 개이니 달은 못 강의 물가운데 비치네 금수도 슬피 울고 산빛도 변하는데 단풍과 누른 국화가 옛 길을 통했네”

라는 구하(九河)라는 글자를 가지고 사형스님의 법을 기리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사형사제(師友)간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정도 스님(동국대 외래교수)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종·반디엔터테인먼트·에스24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 육임 학습서 ◆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육임사주강론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5만원 이상3종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대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대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3판본정권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종 오행본 CD프로그램 ◆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종합) 350만원
· 육임강론 2011최신판 순별 6권 수록 90만원
· 육임대정비법 혁신판 수정본완본 월장본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권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3판본 1권 수록 30만원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육임강론 2011정권본 수록 20만원
· 월령도 2011정권본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권본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권본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공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타 ◆
· 육임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육임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신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종합CD프로그램(무인중장착) 정가350만원
· 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120만원
· 한국육임학회 인터넷강의 동영상 매1회 (24시간수강) 7천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주)
동 계 301-0071-8027-01/ 육임나라(주)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가능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대한불교 일월조계종 종도모집
상부, 상조, 상생의 이념으로 하나가 되어 참나, 자성을 찾는 도반으로 뜻을 함께할 종도님을 모십니다.
◆ 연수원 : 사자암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산(불사중)
총무원 직할 연수원에서 수행하실 (10월~) 참신한 스님, 청신사, 청신녀님을 찾습니다.
◆ 총무원 : 장원사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 1길 9-5
총무원장 011-677-8525

대관음사 행자모집
1. 만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권,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납골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개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과목 : 1. 범음법해학과 (교수: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법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태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이현주 님)
범음법해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칠정례,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향수해례, 칠언사구성, 짓소리.
■ 스님 : 기본과정 - 사물, 법고, 도량서,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삼마라, 나비춤(도량계, 다계)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9계곡, 방생의식, 상용영만, 종사영만,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 법패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